

## 복합명사 어순에 있어서의 공감도 연구

### 최 상 진

#### 1. 머리말

이 논문은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N1 N2)<sup>1)</sup>의 어순구성 문제를 공감도(Degree of Empathy)라는 기능문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복합명사는 대체로 단어와 단어사이에 성분관계를 지니고 있는 유속형 복합명사와 대등한 의미의 결합관계를 이루는 병렬형 복합명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sup>2)</sup> 통사론적 관계를 지니는 복합명사는 형태론에서 주로 어휘형성규칙을 세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어순문제는 대개 그 성분관계와 관련되어 설명되어진다. 그런데 병렬관계를 지닌 복합명사는 대등한 의미를 지닌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사론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문제는 형태론적 연구인 어휘형성규칙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즉,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문제는 어형성문제와는 달리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순연구에 있어서의 Cooper & Ross(1975)의 '나먼저 원칙(Me-First principle)'과 Kuno(1975)의 '공감'(Empathy)적 관찰을 연결지우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Cooper & Ross(1975)의 연구와 Kuno(1987)의 연구는 각각 전자는 단어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문구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화자의 위치에서의 'Me-First principle' 관점과 'the speaker's identification'<sup>3)</sup>의 관점은 논지상으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ooper & Ross(1975)의 어순연구는 'Me-First'라는 화자의 심리적인 차

---

1)복합명사는 합성명사라고도 한다. 복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복합어와 합성어, 구와 복합어 등의 기준과 용어 문제에도 혼란이 있다. 여기서는 복합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병렬형의 다른 용어는 대등형이 있다. 대등복합어나 병렬복합어는 같은 개념이다.

3)화자의 '感情移入', '自己同一視'를 일컫는다.

원에서 원칙적인 문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규칙체계를 성립하지는 못 하였다. 반면, Kuno는 공감도(Degree of Empathy)를 통해서 문과 화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적 규칙체계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어순에 대한 언급은 문에 있어서의 NP와 NP사이의 공감계층(Empathy Hierarchy)적 관계만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두 논의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접목시켜 상호 보완한다면, 단어의 어순문제에 있어서 좀더 생산성을 지닌 조건체계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Cooper & Ross(1975)의 '나먼저 원칙'과 Kuno(1987)의 '공감도'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복합명사 어순의 구성규칙조건을 세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복합명사 전반에 걸쳐 논의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5)</sup>

어순에 관련한 연구는 Cooper & Ross(1975), Clark & Clark(1977), John & Lakoff(1980)가 있다. 국어 병렬형 복합어의 어순문제에 대한 연구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연구 등에서 그 연구성과가 있다. 노대규(1982)는 의미론적, 화용론적 어구성 법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개 Cooper & Ross(1975)의 견해를 모태로 하고 있다. 채완(1986)의 병렬형 복합어의 어순연구는 심리적, 인지적 동기에서 살피고 있으나 역시 원칙적인 논의에 그친 감이 있다. 또 김승렬(1988)도 병렬복합어의 어순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로 Cooper & Ross(1975), Clark & Clark(1977), John & Lakoff(1980)의 견해를 국어에 적용시킨 것이다.<sup>6)</sup> 최규일(1988)은 어휘형성론적 접근에서, 임지룡(1992)은 어휘의미론적 접근에서 복합어의 어순구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앞서의 Cooper & Ross(1975), Clark & Clark(1977), 노대규(1982) 등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Cooper & Ross(1975), Clark & Clark(1977), John & Lakoff(1980) 등의 영어학 연구를 포함한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들은 모두 원칙만을 제시하였을 뿐, 좀더 생산적인 규칙조건을 세우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4) 문에 있어서의 주어부에 나타나는 NP와 NP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화자의 자기 동일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쪽이 선행 NP가 된다 하였다.

5) 복합명사의 공감도에 관한 연구는 통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속형 복합명사 연구에서 더욱 폭넓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6) 김승렬(1988:145)은 "병렬복합명사들은 선후 성분간에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서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을 수 없다.<중략>따라서 병렬되어 복합어를 이룬 선후 성분 명사의 배열 순서에서 어떤 규칙성이나 강한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한 발 다가서는 셈이다."라 했다.

없지 않다.

공감도 문제는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 연구방법이다. Kuno & Kaburaki(1975)에 의해서 제기되어, Kuno(1987)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국내에 이 이론을 국어에 적용, 소개한 것은 김민수(1981)<sup>7)</sup> 박승운(1990)<sup>8)</sup>이 있고 국어해석의 본격적인 분석방법으로 효용한 것은 장선(1977), 임홍빈(1988)의 『국어의 재귀사연구』<sup>9)</sup> 최상진(1988)의 『국어지시어의 시점분석』<sup>10)</sup> 등이 있다. 복합어와 관련한 공감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 다만 김승렬(1988:149)이 Kuno(1987)의 NP1를 가르켜 'Ross의 "Me"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 하여 논지상의 유사점을 발견하였으나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논의는 없다.<sup>11)</sup>

Kuno(1988:232p)는 문에 있어서의 Word Order Empathy Hierarchy를 언급하면서 'NP1-NP2 구조는 화자의 공감(Empathy)이 주로 NP1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Kuno의 Word Order Empathy Hierarchy는 문의 어순을 대상으로 공감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sup>12)</sup>

이 논문은 문에 있어서의 어순문제가 아닌 단어의 어순 구성에서 공감도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천착하고자 한다.

## 2. 복합명사의 어순과 공감

복합명사는 각각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단일개념이 결합되는 것이므로, 복합되는 두 개의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된다. 형태론적으로는 통어론적

7)김민수(1981) 국어발화의 의미구조에서 p232-p240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8)이 책은 Kuno의 기능문법이론을 광범위하게 소개한 책이다. 국어에 대한 이론적 용은 아니다. 공감도에 관한 언급은 제 10장에 있다.

9)언어학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시점연구는 주로 재귀사에 집중되어 있다. 국어의 재귀사에 대한 시점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호기심의 대상이다. 특히 재귀사 '자기'의 연구는 많은 연구논문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정민, 장선, 임홍빈이 다루고 있다. 임홍빈의 이 연구는 재귀사를 기능문법적으로 살핀 본격적인 연구이다.

10)이 논문은 국어지시어를 기능문법적 관찰로 본 연구이다. 이외에도 국어대우법을 시점적 관찰로 본 연구도 있다. 최상진(1989), 『국어대우법상의 시점분석』, 『어문연구』64, 서울:일조각.

11)김승렬(1988:149)의 각주에서 간략히 언급만 하고 있다.

12)Kuno의 Word Order Empathy Hierarchy에 대한 연구는 공감도 연구에 극히 일부 분으로 처리하여 문제제기만을 한 것이다.

인 결합관계가 이루어지며 의미론적으로는 의미내용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결합 관계는 각각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성규칙<sup>13)</sup>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단어와 단어의 결합관계는 대개 두 단어의 결합이 복합명사의 주류를 이루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기도 하며, 결합정도에 따라서는 무한한 결합도 가능하다.

복합명사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일정한 순서(order)를 가지고 있다. 어느 단어가 선행하고 어느 단어가 후행하는가에 따라서 큰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또 일정한 순서쌍(order pairs)<sup>14)</sup>을 가지지 않으면 단어구성이 성립될 수 없는 어순제약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 가. 앞뒤-\*뒤앞 피땀-\*땀피

나. 신바람-\*바람신 열쇠-\*쇠열

다. 뛰놀다-\*놀뛰다 오가다-\*가오다

라. 生死-死生(아들의 생사를 모른다.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마. 뚱개-개뚱 집안-안집

바. 남북협력-북남협력 연고전-고연전

(1)가는 병렬형 복합명사로서 어순구성상에 분명한 화용론적 어순제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나는 통어론적 관계를 보여주는 복합명사로서 어순이 뒤바뀌면 복합어로서 성립되지 못하는 예를 보여 준다. (1)다는 복합동사이다. 이 역시 어순이 바뀌면 복합어로서의 적형식이 성립되지 못한다. 즉, (1)나, 다는 어순조건상에 통어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예이다. 그러나 (1)라는 어순이 바뀌어도 화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두 단어의 구성상에 어순제약을 가져오지 않는다<sup>15)</sup>. (1)마는 어순이 바뀌었을 때 의미적 차이를 가져오는 예이다. 즉, 단어의 선후어순관계가 의미적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 (1)바는 화자의 화행적 위치에서 복합명사를 각각 자기동일시하여 이루어진 어순이다. 이는 어순구성상에 자기중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화용론적 논의로 접근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13)이 연구는 형태론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요즘 chomsky의 X-bar이론을 통해서 생성형태론이라는 논리로 조명되고 있다. 이석주(1989), 송철의(1992) 등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다.

14)형식의미론에서 쓰는 용어이다. 순서쌍이란 선후관계가 뒤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 순서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15) 채완(1986:139)은 한자어에서는 생-사와 사-생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였다. 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상기 (1)의 여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나를 제외한 복합명사의 어순 구성은 화용론적으로 화자의 시점(Point of view)이 복합명사의 어순구성에 매우 중요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곧 복합명사의 어순을 화자의 위치와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나는 화행상의 문제는 아니며, 통어론적인 면에서의 어순제약을 가지고 있다. 통어론적인 면에서의 화자의 시점 문제는 이미 Kuno(1987)에 의해서 화행상의 공감도로 분석된 바 있으므로, (1)바의 어순관계 역시 화용론적인 규칙성 논의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병렬형 복합명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둔다.

Cooper & Ross(1975 : 65~67)는 병렬형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심리적인 면과 음운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인 면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음운적인 면은 논외로 하겠다<sup>16)</sup>. Cooper & Ross(1975)의 '나먼저원칙'은 화자의 시간적·공간적·심리적 위치에서 화자 자신의 자가중심으로부터 인식된 것이 선행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Cooper & Ross(1975)의 '나먼저원칙'과 Kuno(1987)의 '공감' 관점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Kuno(1987 : 206)는 공감(Empath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 공감(Empathy) : 공감(Empathy)이란 화자의 자기동일시(the speaker's identification)이다. 일정한 사건(event)이나 상태(state)를 문에 기술함에 있어서 문에 등장한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것을 공감이라 한다.

Kuno(1987 : 212)는 또 화행상에 공감계층(Speech Act Empathy Hierarchy)을 말하면서,

- (3) 화행상의 공감계층(Speech Act Empathy Hierarchy) : 화행상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어떤 대상을 자기동일시로 취할 수 없다.

$$E(\text{speaker}) > E(\text{others})$$

16) Cooper & Ross(1975 : 75)는 어순을 결정할 때, 음운론적 원칙이 심리적인 원칙인 '나먼저' 원칙보다 선행되어 적용된다고 하였다.

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Johnson & Lakoff(1980 : 132)은 화자 자신을 'proto-typical'로 설정하고 '가까운 것이 먼저(NEAREST comes FIRST)'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견해 역시 Kuno의 '공감' 관점과 유사하다.

Kuno(1987 : 232)는 Word Order Empathy Hierarchy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4) 단어어순 공감계층(Word Order Empathy Hierarchy) : 화자는 NP의 병렬구조 (coordinate structure)에서 오른쪽의 NP(right-hand NP)보다 왼쪽의 NP(left-hand)에 자기동일시를 취한다.

$$E(\text{Left-hand NP}) > E(\text{Right-hand NP})$$

Kuno의 이러한 견해는 선행하는 NP1이 후행하는 NP2보다 자기동일시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감정이입이 먼저되는 순서로 어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ooper & Ross(1975)는 심리적인 면에 대하여 'Me-first principle'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ooper & Ross(1975 : 65~67p)의 'Me-first principle'에 입각한 분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5) Here: here and there    this and that  
 Now: now and then       sooner and later  
 Present Generation: father and grandfather       son and grandson  
 Adult: man and boy    man, woman and children  
 Male: man and woman    husband and wife  
 Positive: positive or negative    plus or minus  
 Singular: singular and plural  
 Patriotic: Cowboys and Indians    United States and Canada  
 Animate: people and things    person, place or thing  
 Friendly: friend and foe    pro- and Anti-  
 Solid: land and sea    Army and Navy  
 Front: front and back    front and rear  
 Agentive: agent and patient    speaker and hearer  
 Power source: bow and arrow    sun and moon  
 Living: living and dead

17) 편의에 따라서 분류상의 예문의 일부는 생략함.

At home: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t home and abroad  
 General: form and substance genenal and particular  
 Nominal: nouns and verbs  
 Count: count and mass nouns

Cooper & Ross(1975)의 분류를 Kuno의 시각으로 보면, 선행하는 단어는 후행하는 단어보다 화자의 자기동일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순서로 된 것이다. 즉, (5)에 의 'Agentive'류의 'speaker and hearer'의 공감계층과 시간적·공간적 공감계층은,

(6) E(speaker) > E(hearer)  
 E(now) > E(then), E(here) > E(there)

이다. 이러한 Kuno와 Cooper & Ross의 두 견해를 접목하면 곧 병렬형 복합명사 어순 구성에 대한 일정한 규칙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만들어진다. 상기의 분류와 원칙들을 토대로 병렬형 복합명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7)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결정은 화자가 중심이 되어 시간적·공간적·심리적<sup>18)</sup>인 거리상의 화자자신의 자기동일시로 나타난다.

(7)을 기준으로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적 선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한 어순 구성상의 규칙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8) 어순규칙조건 :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은 화자의 자기동일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단일이어가 선행한다. 그러므로 병렬형 복합명사는 선시점의 단어가 앞에 오고 후시점의 단어가 뒤에 오는 공감계층을 만든다.  
 E(선시점 단일어) > E(후시점 단일어)

---

18) 채완(1986 : 125~135)은 지각범주, 인지범주, 사회범주로 나누어 어순과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8)의 공감계층은 화자의 시점조건이 곧 병렬형 복합어의 어순계약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국어 복합명사의 의미적 결합에는 제약성이 없다. 그러나 어순구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성을 갖기 때문에 복합명사로서 생성될 수 있다. 다음은 화자의 시점조건이 선행단어에 있으므로 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예를 보여 준다.

(9) 가. 쌀보리(쌀 and 보리)

나. 보리쌀(\*'쌀'은 곡식의 총칭)

다. 안집 - 집안, 약물 - 물약

(9)가는 '쌀'에 치우친 시점이며, (9)나는 '보리'에 치우친 시점이다. (9)가는 병렬형 복합명사이나 (9)나는 병렬형이 아닌 통사론적 관계의 복합명사이다. 즉, 화자의 공감 즉, 시점조건이 어디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복합어의 성격이 달라지는 예를 볼 수 있다.

실제로 (9)가, 나는 어순이 바뀌어도 각각 상기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8)의 어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하겠다. (9)다는 통사관계의 복합명사이다. 통사관계의 복합명사도 대개 화자의 시점이 대개 선행단어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병렬형 복합명사와는 달리 그 주술관계에 따라서 시점이 반드시 선행단어에만 있지 않다. 이 때는 대개 주어에 치우친 시점성을 가진다.

Kuno(1987 : 211)는 문의 표면구조상에 주어가 드러나 있을 경우 항상 주어 중심의 시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10) 표면구조의 공감계층(Surface Structure Empathy Hierarchy) : 화자는

문에 있어서 다른 NP보다 주어에 치우쳐 자기동일시를 취한다.

$E(\text{subject}) > E(\text{other NPs})$

상기 Cooper & Ross(1975)의 분류에서 '동사' 보다는 '명사'를 선어순으로 취한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합명사는 어순의 선후에 관계없이 주어적 구실을 하는 단어에 그 시점이 이동된다 하겠다. 여기서는 병렬형 복합명사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노대규(1988 : 252)는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의 결합순위를 화용론적-의미론적 원칙에 따라서 다음 예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sup>18)</sup>.

- (11) 가.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것이 나중에 발생한 것에 선행한다.  
 앞뒤/밤낮/음양/생사/선후/시말/전후/조석/진퇴/출입 등
- 나.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가까운 것이 먼 것에 선행한다.  
 여기저기/이것저것/이랬다저랬다/이리저리/표리 등
- 다. 화자에게 더 중요하거나 더 관심이 있는 것이 그보다 덜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 선행한다.  
 물불/논밭/자타/사활/마소/연놈/남북/동서/다소/모순/빈부/전답 등
- 라. 남성의 의미자질을 지닌 요소가 여성의 의미자질을 지닌 요소보다  
 선행한다.  
 남녀/부녀/노비/오누이/남매 등
- 마. 성인의 의미자질을 지닌 요소가 비성인의 의미자질을 지닌 요소에  
 선행한다.  
 부자/형제/모녀/노소 등
- 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약한 힘을 가진 것에 선행한다.  
 강약/우열/총칼/사제/존비/군신/좌우 등
- 사. 긍정적인 의미자질을 지닌 것이 부정적인 의미자질을 지닌 것에 선  
 행한다.  
 선악/길흉/미추/진위/가부/찬반/승패/정오(正誤)/여야/희비 등
- 아. 공간적으로 위쪽이나 안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것에 선행한다.  
 높낮이/안팎/손발/천지/혈육/고저/심신/상하 등

노대규(1988)의 분류를 앞서 언급한 Cooper & Ross(1975)의 분류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11)다에서 고유어 '논밭'의 경우와 한자어 '田畠'을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논리적인 모순성이 발견된다<sup>20</sup>. 그렇지만 국어복합어의 이러한 화용론적 관찰을 통한 구성원칙은 복합어 어순연구에 중요한 원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대규(1982)의 분류는 곧 화자가

19) 노대규(1988 : 249~275)의 논문을 요약하여 분류한 것이다.

20) 노대규(1988 : 261)에서 '논밭'과 '田畠'을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국어와 한자어의 의미표현상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밝혀져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심이 되는 선행어의 선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계층을 보여 주는 어순계약조건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용론적 어순조건은 공감도를 설정하여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구성에 일정한 규칙을 성립시키는 기준으로 받아들여 진다.

병렬 복합명사는 대개 선행하는 단어에 화자의 선 공감에 이루어지는 (8)의 규칙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 그 일반적인 원칙상의 어순이 바뀌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8)의 자기동일시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어순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12) 가. 남녀 - 여남

나. 남북회담 - 북남회담

다. 한일회담 - 일한회담

라. 연고전 - 고연전

(12)는 (8)의 화자가 처해 있는 화행상 조건에 따른 선행어를 선택한 예이다. 이렇게 병렬형 복합어는 반드시 (8)의 조건에 위배될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

(13)  $E(\text{선시점}) > E(\text{후시점}) = 1$

$E(\text{선시점}) > E(\text{후시점}) = 0$

임지룡(1992 : 180)은 대등합성어(여기서는 병렬형 복합명사)를 시간, 수, 성, 거리, 방향, 적극성과 소극성, 긍정과 부정 등 7가지로 나누어 어순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전술한 Cooper & Ross(1975), 노대규(1982)의 분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분류에 따라서 (13)의 공감적 관찰로 본 복합명사의 어순계약 조건을 살펴 보자.

(14)가. 시간 : 오늘내일

$E(\text{오늘}) > E(\text{내일}) = 1$

\*내일오늘

$E(\text{내일}) > E(\text{오늘}) = 0$

나. 수 : 서넛

$E(\text{서}) > E(\text{넛}) = 1$

\*넛서

$E(\text{넛}) > E(\text{서}) = 0$

다. 성 :	부모	$E(\text{부}) > E(\text{모}) = 1$
	*모부	$E(\text{모}) > E(\text{부}) = 0$
라. 거리 :	여기저기	$E(\text{여기}) > E(\text{저기}) = 1$
	*저기여기	$E(\text{저기}) > E(\text{여기}) = 0$
마. 방향 :	앞뒤	$E(\text{앞}) > E(\text{뒤}) = 1$
	*뒤앞	$E(\text{뒤}) > E(\text{앞}) = 0$
바. 적극성, 소극성 :	강약	$E(\text{강}) > E(\text{약}) = 1$
	*약강	$E(\text{약}) > E(\text{강}) = 0$
사. 긍정, 부정 :	진위	$E(\text{진}) > E(\text{위}) = 1$
	*위진	$E(\text{위}) > E(\text{진}) = 0$

병렬형 복합명사는 때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8)의 규칙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자의 공감도 선행어에 치우친 공감계층을 가진다.

(15) 가. 방향 :	이곳저곳그곳	$E(\text{이곳}) > E(\text{저곳}) > E(\text{그곳}) = 1$
	*그곳이곳저곳	$E(\text{그곳}) > E(\text{이곳}) > E(\text{저곳}) = 0$
나. 거리 :	상중하	$E(\text{상}) > E(\text{중}) > E(\text{하}) = 1$
	*중하상	$E(\text{중}) > E(\text{하}) > E(\text{상}) = 0$

(15)가는 화자 위치에서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감계층을 보여주는 예이며, (15)나는 화자의 공감도 위에서 아래로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감계층으로 나타난다.

### 3. 공감도와 어순구성조건

앞서 우리는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이 선행어에 화자의 공감도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 어순조건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그 공감도적 규칙조건을 세워 보고자 한다.

Kuno(1987 : 206)는 공감도(Degree of Empath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6) 공감도(Degree of Empathy) : 공감도란 화자가 주어진 대상  $x$ 에 대한 공감된 정도의 값(The degree of the speakers' Epathy)이다. 이를 표시하면  $E(x)$ 이다. 그 범위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이다. 1은 대상  $x$ 에 대한 완전한 자기동일시의 값을 의미하며, 0은 완전한 자기동일시가 되지 않은(a total lack of identification) 값이다.

다시말해서, 문에 있어서 지시대상  $x$ 에 대한 화자의 자기동일시를 '공감'이라고 하면, 그 공감도는  $E(x)$ 로 표시 된다. 공감도는 객관적 묘사인 그 값 0에서 완전한 동일시인 그 값 1까지의 연속체이다<sup>21)</sup>. 따라서 이러한 시점조건에 일관성이 없으면 곧 병렬복합어로서의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병렬형 복합명사에 있어서의 공감도는 다음과 같이 보여 진다.

(17)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제약조건

공감조건 :  $\langle x, y \rangle$ 의 순서쌍

$x$ 는 선행어, 선시점  $y$ 는 후행어, 후시점

공감도 :  $E(x) > E(y) = 1$

$E(x) < E(y) = 0$

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서 (14)를 어순규칙조건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8) 가. 시간 : $x$ 선시간 $y$ 후시간  | $E(x) > E(y) = 1$ |
| 나. 수 : $x$ 선수 $y$ 후수          | $E(x) > E(y) = 1$ |
| 다. 성 : $x$ 남성 $y$ 여성          | $E(x) > E(y) = 1$ |
| 라. 거리 : $x$ 가까운 거리 $y$ 먼 거리   | $E(x) > E(y) = 1$ |
| 마. 방향 : $x$ 가까운 방향 $y$ 먼 방향   | $E(x) > E(y) = 1$ |
| 바. 적극성, 소극성 : $x$ 적극성 $y$ 소극성 | $E(x) > E(y) = 1$ |
| 사. 긍정, 부정 : $x$ 긍정 $y$ 부정     | $E(x) > E(y) = 1$ |

이렇게 병렬형 복합명사의 공감도의 규칙조건은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12)와 같이 어순이 바뀔 때도 이 공감도는 변형되지 아니한다. 즉, 그것은 화자가 자신의 자기동일시가 선행어에 먼저 나타난다는 공감도 규칙에 위배될 수 없으므로, 화자의 위치에서 자기동일시되는 후행어를 선행어로 도치시켜 발화하기 때

21)김민수(1981 : 233) 인용.

문이다. 김승렬(1988 : 154)은 복합어 '피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9) <강조어/실질어>

피 - 땀

선행요소 '피'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강조의 기능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땀은 "피와 땀"이란 의미에서 "힘들어 일할 때 흘리는 진땀"은 의미로 쉽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승렬(1988)의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강조의 기능이란 화자가 심리적으로 선행어에 자기동일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합어 분류에 있어서 강조어와 실질어의 설정은 이미 병렬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복합명사이다. 따라서 이 복합명사는 공감도적 규칙으로 나타난 어순의 결과라 하겠다.

병렬형 복합명사는 때로 한 단어가 반복해서 결합하는 반복형 복합명사와 같은 이음동의어의 동의중첩형 복합명사가 있다. 반복형 병렬 복합명사는 화자의 자기동일시가 어순의 선후에 관계없이 결합된 두 단어가 동일시점을 갖는다 하겠다. 이 때의 공감도도 선후행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난다.

(20) 반복형 병렬 복합명사

집집/골골/나날/다달/사이사이/툼툼/때때/생김생김 등

(20)의 시점조건은  $E(\text{집}) = E(\text{집}) = 1$ 이다. 그러므로 (20)의 공감도는,

$$(21) E(x1) = E(x2) = 1$$

로 보여진다. 동의중첩형 복합명사는 반복형 복합명사와는 다르다. 내용적으로는 시점조건이 동일하여  $E(x) = E(y) = 1$ 의 공감계층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음운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22) 동의중첩형 병렬 복합명사

뽕따귀/대갈머리/근심걱정/속안/자식새끼 등

즉, (22)의 내용상 시점조건은  $E(\text{뽕}) = E(\text{따귀}) = 1$ 이나 '따귀뽕'이라는 복합명사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22)의 공감도는 선행어에 대한 화자의 음운적 고려의 자기동일시로 보아,

(23)  $E(x) > E(y) = 1$

로 보여진다. 동의중첩형 가운데는 '외가집' '숙내의' '새신랑' '역전앞' 등의 형태가 있다. 이는 병렬형 복합명사라기보다는 통사관계를 지닌 복합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논의로 한다.

두 단어 이상의 병렬 복합명사의 예는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

(24) 가. 상증하/천지인

나. 이화여자대학교/서울국제언어학학술대회

(24)가는 병렬형 복합명사이며, (24)나는 유속형 복합명사이다. 각각 공감도는

(25) 가.  $E(x) > E(y) > E(z) = 1$

나.  $E(x) > E(y) > E(z) = 1$

(25)나는 유속형 복합명사지만 고유명사는 반드시 어순구성원칙에 선행하는 명사이므로 화자의 공감도에 따라서 (25)나가 성립된다.

병렬형 복합어에는 명사류도 있지만 동사, 형용사에도 있다. 병렬형 복합동사나 복합형용사는 대개 복합명사의 공감도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로 논의 할 필요는 없다.

(26) 가. 병렬형 복합동사

오가다/여닫다/오르내리다 등

나. 병렬형 복합형용사

요리조리/이모저모/둘쭉날쭉 등

(26)가, 나는 모두  $E(x) > E(y) = 1$ 의 공감도를 지닌다 하겠다. 의태어, 의성어의 경우 어휘의 음운형식은 다르나 그 의미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흔히 의성어, 의태어는 언어수행상 의미적인 요소보다는 음운적 요소에서 어휘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도 화자의 심리적인 요소보다는 화자의 음운의식에 대한 공감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7) 가. 의태어 : 갈팡질팡/울긁불긁/싱글빙글 등
- 나. 의태어 : 빙글빙글/미끈미끈/주렁주렁 등
- 다. 의성어 : 왈그락달그락 등
- 라. 의태어 : 철썹철썹/삐걱삐걱/출렁출렁 등

즉, (27)가, 다는 음운적 선행어가 나타나 있으므로 화자의 음운의식이 선행어에 먼저 자기동일시된 결과라 하겠다.

- (28) (27)가, 다의 공감도  $E(x) > E(y) = 1$
- (27)나, 라의 공감도  $E(x1) = E(x2) = 1$

로 나타난다 하겠다. 앞서 논의한 바 있는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의 공감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29) 기본조건  $E(x) > E(y) = 1$ ,  $E(x) < E(y) = 0$
- 변형조건 1.  $E(x1) = E(x2) = 1$
- 2.  $E(x) = E(y) = 1$
- 3.  $E(x) > E(y) > E(z) = 1$

공감도는 화자의 화행상의 심리적 자기동일시가 기준이 되므로, 상기의 조건들이 어순구성상의 일정한 규칙체계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순의 화용론적 제약조건에 대한 일정한 논리적 장치로서는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 4. 맺음말

이 논문은 Cooper & Ross(1975)의 어순원칙 이론과 Kuno(1987)의 공감도 이론을 접목시켜,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구성상 규칙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복합명사의 어순연구가 단순히 심리적 기제에 의해서 원칙론적으로 분석되던 것을 좀더 생산성을 지닌 화용론적인 규칙성으로써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복합명사의 어순구성에 있어서 유속형 복합명사는 통사론적 제약을 받고,

병렬형 복합명사는 화용론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병렬형 복합명사의 어순제약은 화자의 자기동일시의 시점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는 결합되는 단어  $x, y$ 에 대한 화자의 시점이 어순구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국어 병렬형 복합명사는 화행상 항상 화자의 공감(Empathy)이 치우친 단어가 선행어가 되어 어순구성을 이룬다.

다섯째, 국어 병렬형 복합어의 공감계층은  $E(\text{선행어}) > E(\text{후행어}) = 1$ 로 나타난다.

여섯째, 통사관계를 지니고 있는 복합명사는 선, 후행어에 관계없이 주어적 역할을 하는 단어에 화자의 공감이 선행되어 이루어진다.

일곱째, 병렬형 복합명사의 공감도(Degree of Empathy)의 어순규칙조건은 다음과 같다.

$$\text{기본조건 } E(x) > E(y) = 1$$

$$E(x) < E(y) = 0$$

$$\text{변형조건 } 1. E(x1) = E(x2) = 1$$

$$2. E(x) = E(y) = 1$$

여덟째,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병렬형 복합명사는  $E(x) > E(y) > E(z) = 1$ 의 공감계층을 갖는다.

앞으로 통사관계를 가진 유속형 복합명사의 어순문제도 이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광해. 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호. 국어국문학회.
- 김민수. 1981. 「국어의미론」. 서울: 일조각.
- 김봉주. 1987.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김승렬. 1988. 「국어어순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종택. 1982. 「국어화용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창섭. 1990. 복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 노대규. 1988. 「국어 의미론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박미라. 1988. 언어와 시점. 「영어영문학연구」 10. 연세대 영어영문학회.
- 박승윤. 1990. 「기능문법론」. 서울: 한신문화사.

- 서정수. 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호. 한글학회.
- 심재기. 1980.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 이석주. 1989. 「국어형태론」. 서울: 한샘.
- 이익섭. 1965. 국어복합명사의 IC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 1967. 복합명사의 액센트 고찰. 「학술원 논문집」 6.
- 이주행. 1981.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 임지룡. 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홍빈.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장석진. 1985. 「화용론연구」. 서울: 탑출판사.
- 전상범. 1987. 「생성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정정덕. 1982. 합성명사의 의미론적 연구. 「한글」 175호. 한글학회.
- 최규일. 1988.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최상진. 1989. 국어대우법의 시점분석. 「어문연구」 64집. 서울: 일조각.
- 최상진. 1990. 국어지시어의 거리와 시점. 「국어국문학」 104호. 국어국문학회.
- 채 완. 1986. 「국어 어순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Clark, H.H. & E.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 Cooper, W.E. & J.H. Ross. 1975. Word order. *CLS Functionalism*.
- Cruse, D.A. 1975. Hyponymy and lexical hierarchies. *Linguisticum(N.S.)* 6.
- Dik, S.C. 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Publishing Co.
- Gruber, J.S. 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 PH.D.dissertation, M.I.T.
- Johnson, M. & G. Lakoff.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no, S. & E. Kaburaki. 1975. Empathy and syntax. *Harvard Studies in Syntax and Semantics* 1.
-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da, E.A. 1949. *Morpholog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